

햇살 같은 안녕

햇살 같은 안녕

아멜리 자보·코린느 위크·오로르 푸메·샤를린 왁스웨일레 글
아니크 마송 그림 명혜권 옮김



아멜리 자보, 코린느 위크, 오로르 푸메, 샤를린 왁스웨일레 글 | 아니크 마송 그림 | 명혜권 옮김 | 북극곰

#가족 #이웃 #죽음 #사별 #헤어짐 #이별 #인사 #슬픔 #애도 #추억 #가족애 #사랑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	---	---	----

<활동지1>

	지우개 지우기	이름
---	----------------	-----------

※ 책의 표지만 본 뒤 이 책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낱말 6개를 지워봅시다.

-책의 표지만 보고 활동합니다.

-남겨둔 단어를 보고 왜 그 단어를 남겨두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을 때에는 옆의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지우기 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놀이터	소풍	안녕
치킨	걸음마	달걀
햇살	생일	죽음


<활동지2>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이름
--	-------------	----

※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파랑이의 마음을 써 봅시다.

			
할머니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할머니가 떠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픈 할머니가 꼭 안아주었을 때		할머니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릴 때		아픈 할머니와 이웃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할 때	
			
편안히 눈을 감는 할머니 모습을 봤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할 때	

<활동지3>

	이제도 할머니 돌봄 계획서	이름
---	----------------	----

이제도 할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할머니가 파랑이나 이웃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
<p><이제도 할머니 돌봄 계획서></p> <p>☞ 이제도 할머니를 위해 파랑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써 봅시다.</p>	
1.	하기
2.	하기
3.	하기

<활동지4>



비슷한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

이름

***그림책을 읽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짧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1. 그림책 장면 중 나의 경험과 비슷한 장면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2. 그림책 속 인물의 감정이나 느낌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며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3. 사랑하는 누군가와 헤어지거나 '죽음'처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해 본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4. 1,2,3에서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비슷한 경험을 짧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햇살 같은 안녕



아멜리 자보, 코린느 위크, 오로르 푸메, 샤를린 왁스웨일레 글 | 아니크 마송 그림 | 명혜권 옮김 | 북극곰

#가족 #이웃 #죽음 #사별 #헤어짐
#이별 #인사 #슬픔 #애도 #추억 #가족애 #사랑

주제	반려 존재를 맞이하고 놓아주는 과정을 알아보고 올바른 관계 이해하기
권장 차시	8차시
대상 학년	1~2학년
교육 과정 연계	국어 [2국01-02]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2국05-04]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
작성자	밀양 송진초등학교 이송이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슬픈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파랑이에게 어느 날 슬픔이 몰려옵니다. 엄마와 아빠가 슬퍼하는 모습만 봐도 파랑이는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바로 이제도 할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사실은 이제 할머니의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글쓴이는 벨기에 리에주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애도 전문 심리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의 가족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이 가족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애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햇살 같은 안녕』은 사랑하는 이제도 할머니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파랑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독여줍니다. 할머니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절망하고 병문안을 가고 추억을 쌓는 과정을 통해 파랑이와 이제도 할머니는 햇살 같은 이별을 준비합니다.

이 책의 그림 작가는 ‘다소 진지한 이야기’를 따뜻하고 생기 넘치고 감동적인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도 할머니와 파랑이를 비롯한 모든 캐릭터가 하나하나 개성이 넘치고 살아 있습니다. 마을 동물들 모두가 우리 이웃처럼 정감이 넘칩니다. 표지만 봐도 읽고 싶은 그림책, 바로 『햇살 같은 안녕』입니다.

■ 학습 목표

-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 장면에 따른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여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인물의 마음에 공감하며 이별의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가족과의 이별은 누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것이다. 특히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경우는 대상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힘들게 다가온다. 어른과 달리 어린이들은 사별의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이별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또한 아직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죽음으로 인해 누군가를 영영 다시 보지 못한다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햇살 같은 안녕』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아픈 가족을 돌보려는 가족과 이웃들의 모습, 이별을 받아들이기 위해 함께 모여 슬픔을 나누는 모습, 사별 후에 남은 이의 슬픔과 추억을 떠올리는 모습이 순서대로 그려지고 있어 마치 이별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한 듯한 마음이 들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며 이별을 충분히 애도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책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별 후의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는 추억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남은 이의 슬픔을 달래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준비물 활동지 1~5, 포스트잇, 흰 손수건, 붓펜, 분장 도구(펠트지, 가위, 색종이, 테이프 등)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책 살펴보기 비슷한 경험 나누기	1차시
읽는 중	내용 파악하기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돌봄 계획서 세우기	2차시
읽은 후	공감 가는 장면 고르기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기	2차시
	인터뷰하기 작별 인사 남기기	2차시
	【선택 활동】 나도 작가 -표지 바꾸어 그리기	1차시

읽기 전

1. 책 살펴보기

- 표지 그림 살펴보기(표지의 제목을 가리고 표지 그림만 살펴본다)
 - 표지를 살펴봅시다. 뭐가 보이나요?
예) 큰 닭과 작은 새가 보입니다. 닭과 파란 새가 보입니다.
 - 어떤 표정인가요?
예) 행복해 보이는 표정입니다. 편안해 보이는 표정입니다. 즐거워 보이는 표정입니다.
 -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 작은 새가 큰 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둘이 같은 행동을 하며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 지우개 지우기 활동 <활동지1 참고>
 - 표지만 본 뒤 이 책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낱말 6개를 지워봅시다.

놀이터	소풍	안녕
치킨	걸음마	달걀
햇살	생일	죽음

- 남겨둔 낱말 3개를 보며 왜 그 낱말을 남겨두었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인 것 같아 놀이터, 소풍, 햇살을 남겨두었습니다.

닭이 나오니까 치킨, 달걀을 남기고 알에서 새가 태어나니까 생일도 남겨두었습니다.

책 내용과 표지 그림이 반대되는 것 같아 죽음, 안녕, 햇살을 남겨두었습니다.

Tip. 초등 저학년 대상의 수업에서는 9개의 낱말로 활동을 하지만 고학년의 경우에는 낱말 수를 더 늘릴 수 있다. 아이들이 표지만 보고서는 죽음이나 이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활동을 통해 반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뒤에 나오는 제목 맞추보기 활동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단어를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 속표지 살펴보기(속표지의 제목을 가리고 속표지 그림만 살펴본다)

- 속표지를 살펴봅시다. 뭐가 보이나요?

예) 표지에 나오는 큰 닭과 작은 새가 보입니다.

-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 큰 새가 작은 새를 한 팔로 안고 있습니다.

큰 닭은 눈을 감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새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표지와 속표지 그림의 느낌이 어떤가요?

예) 편안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 두 등장인물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상상하며 말 주머니에 대사를 적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대화의 예		
아기새	큰 닭	
-저도 같이 가요.	-조심히 따라오렴.	
-저 중심 잡기 잘하지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걸음마 연습은 어려워요.	-천천히 날 따라 해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구나.	

Tip. 말풍선 모양 포스트잇을 한 사람당 두 개씩 나누어주고 각 인물의 대사를 상상하여 적어보게 한 뒤 앞에 나와 칠판에 붙이게 한다. 교사가 보며 이유가 궁금한 대화 내용을 읽어주고 그 대사를 쓴 학생의 이유를 들어본다. 등장인물을 단어로 지칭하면 자칫 자유로운 상상에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칠판에 표시할 때는 간략한 그림이나 실물 도서를 가져다 두고 활동하도록 한다. 또는 활동지를 이용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 면지 살펴보기

- 뭐가 보이나요?

예) 새 발자국이 보입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파란색입니다.

큰 것은 표지의 큰 닭 발자국 같고 작은 것은 표지의 작은 새 발자국 같습니다.

- 새 발자국 그림을 보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예) 두 마리의 새가 함께 즐겁게 놀았던 곳의 발자국 같습니다.

발자국이 겹치는 곳에서는 서로 부딪혔을 것 같습니다.

큰 새가 아기 새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큰 발자국만 보이는 것을 보아 작은 새는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 제목 맞추보기

- 표지와 속표지, 면지를 보고 난 뒤 이 책의 제목을 맞추봅시다.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일지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예) ‘엄마와 아기’일 것 같습니다. 표지의 인물들이 엄마와 아기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추억’일 것 같습니다. 그림 속의 인물들이 즐거운 일을 추억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함께 걸어요’일 것 같습니다. 엄마 닭이 아기 새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Tip. 표지가 주는 따뜻한 느낌에 접근해서 제목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지만 그림만으로 제목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처음엔 전혀 다른 방향의 제목이 나오기도 하지만, 마음 열기 활동에서 했던 단어를 힌트로 주거나 글자 수 힌트, 초성 힌트, 그리고 그림의 느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OO 같은 안녕’이라고 순차적으로 힌트를 제시하여 정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표지 제목을 알려주고 제목의 느낌 알아보기

- 이 책의 제목은 ‘햇살 같은 안녕’입니다. 제목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이 듭니다.

■ 제목의 의미 살펴보기

- 안녕이라는 인사는 언제 하나요?

예) 만날 때 합니다. 헤어질 때 합니다. 친구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합니다.

■ 제목을 보며 내용 예상하기

- ‘햇살 같은 안녕’이라는 제목을 보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가족들에게 다정하게 인사하는 내용의 이야기 같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인사를 전하는 내용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햇살 같은 느낌의 말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 본문의 그림만 훑어보며 어떤 내용일지 상상하기

- 그림을 보니 어떤 내용이 상상됩니까?

예) 아기 새 가족의 이야기 같습니다.

누군가가 아픈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픈 닭을 위해 여러 동물이 함께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뒤표지 글 읽어 주며 그림 함께 보기

-뒤표지 그림은 어떤 장면인가요?

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있고 아기 새가 안겨 있습니다.

-뒤표지의 글을 읽고 나니 등장인물들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예) 아픈 할머니를 보며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 해서 할머니도 슬플 것 같습니다.

2. 비슷한 경험 나누기

■ 이별 경험 이야기 나누기

-여러분은 사랑하는 누군가와 헤어지거나 ‘죽음’처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예)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웃에 친하게 지내던 아빠 친구가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서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Tip. 교실 속 학생 중에는 실제로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여 마음의 상처를 지닌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별 경험을 떠올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이별이든 이별을 경험한 그 마음과 느낌에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한다.

읽는 중

1. 내용 파악하기

■ 함께 읽고 내용 확인하기

- 이제도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나요?

예) 밝고 따뜻한 분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분입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 이제도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구였나요?

예) 파랑이입니다.

- 파랑이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예) 팥이를 만들 때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파랑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 슬픈 것입니다.

- 파랑이가 어느 수요일에 겪은 최고로 무서운 일은 무엇이었나요?

예)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병이 너무 심해 이젠 고칠 수 없다고 한 일이었습니다.

- 그때 파랑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걱정이 됩니다. 슬프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 까까, 빠까와 함께 병문안을 갔던 날 파랑이는 어떤 기분이었다고 했나요?

예) 혼자가 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예) 모두 슬퍼하고 있는데 어찌할 줄 몰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파랑이를 따뜻하게 반기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 할머니가 떠나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아빠의 말에 파랑이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예) 겁이 났을 것 같습니다.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슬펐을 것 같습니다.

- 파랑이는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예) 할머니를 안아준다고 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자 엄마는 파랑이에게 어떻게 했나요?

예) 할머니와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파랑이와 할머니에게는 어떤 추억을 떠올리며 파랑이는 어떻게 했나요?

예) 미소를 지었습니다.

- 동물들이 모두 모여 무엇을 했나요?

예) 모닥불을 피우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고 노래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 동물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모두가 좋아하는 할머니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함께 떠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모여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 할머니가 위독하여 잠든 것처럼 보였을 때 파랑이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예) 할머니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할머니가 편안히 눈을 감았을 때 파랑이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예)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을 거라고 했습니다.

-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슬퍼질 때마다 파랑이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예) 팥이를 돌리며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2.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 순서에 따른 장면을 보며 인물의 마음 상태 짐작해 보기 <활동지2 참고>

-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제시된 그림 카드를 보고 인물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일이 일어난 순서	인물의 마음 예시
1. 할머니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다. 긴장된다. 불안하다.
2. 할머니가 떠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걱정된다. 슬프다. 절망적이다.
3. 아픈 할머니가 꼭 안아주었을 때	사랑한다. 가슴이 아프다. 속상하다.
4. 할머니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희망적이다. 용기 있다. 반드시 한다.
5.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릴 때	아름답다. 행복하다.
6. 아픈 할머니와 함께 이웃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할 때	기쁘다. 행복하다. 슬프다.
7. 편안히 눈을 감는 할머니 모습을 보았을 때	다행이다. 슬프다. 괴롭다.
8.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할 때	슬프다. 행복하다. 보고 싶다.

Tip. 1번과 2번은 비슷한 대답이 나올 수 있으나 1의 상황은 할머니 병이 심각하여 많이 아픈 상황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2의 상황은 할머니와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파랑이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3. 돌봄 계획서 세우기

- 아픈 가족이나 이웃을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도 할머니 돌봄 계획서 세우기

- 아픈 가족이나 친척 또는 이웃을 돌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엄마가 아프셨을 때 아프지 않도록 집안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 아프셔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병문안 간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다리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 아픈 가족이나 친척 또는 이웃을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파랑이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상상하며 이제도 할머니 돌봄 계획서를 완성해 봅시다. <활동지3 참고>

Tip. 처음엔 파랑이가 되어 이제도 할머니를 위해 내가 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의 요구에 집중해 보게 하고 다음엔 할머니의 입장이 되어 할머니가 남은 가족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게 한 뒤 둘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뒤에 파랑이의 계획서를 세워 보도록 한다.

읽은 후

1. 공감 가는 장면 고르기

- 마음에 드는 장면을 고르고 이유 말하기

- 마음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예) 할머니 농장의 모습이 따뜻하고 포근해 보여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모든 동물이 모여 할머니를 돌보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파랑이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가 파랑이를 꼭 안아주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와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에 슬픔을 이겨내고 훨훨 날아오르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2.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기

- 인물의 마음에 공감하며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

- 가족이나 친척 또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지니던 이웃이나 동물 등과 이별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슬플 것 같습니다./ 멍한 기분일 것 같습니다.

Tip. 학생 중에는 사람과의 이별 경험이 크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죽음이 아닌, 멀리 헤어져서 다시 만나기 힘든 경험, 또는 영영 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게 이별을 해 보았던 경험, 반려동물과의 이별 등에 대해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 오늘 읽은 그림책 내용과 자신이 겪은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그림과 함께 '이별'에 대한 짧은 글도 함께 적어봅시다. <활동지4 참고>



Tip. 짧은 글쓰기는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활동이므로 운문, 산문 등의 형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뷰하기

- 여러분이 파랑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점 한가지씩을 적어 포스트잇에 적고 이젤 패드에 붙여 봅시다.

예)

- 이제도 할머니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할머니와 어떤 추억들이 있나요?
- 이제도 할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 할머니의 병문안을 갔을 때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나요?
- 왜 할머니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 이웃과 함께하는 모닥불 식사 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셨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할머니가 가장 보고 싶을 때는 언제인가요?
-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등

- 이젤 패드에 붙은 질문 내용들을 모두 함께 확인해 봅시다.

Tip. 질문을 적은 뒤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모아 유형화한다. 학급 인원수가 적은 경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질문을 적게 하고 질문 정리도 학생들끼리 하도록 하며 학급 인원수가 많은 경우 한 사람당 두 개 정도의 질문을 적게 한 뒤 질문 정리는 교사 주도로 할 수 있다. 질문지를 정리하며 질문에 대한 답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한 친구는 파랑이가 되어 앞의 의자에 앉아 친구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파랑이에게 한 가지씩 질문하는 인터뷰 활동을 해 봅시다.

		
파랑이 분장 도구	파랑이 분장 과정	인터뷰 장면


Tip. 이 활동은 “햇시팅 기법(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등장인물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감상 활동)”을 활용하여 파랑이의 입장이 되어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본 뒤 이별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주인공 역할을 이제도 할머니로 바꾸어 떠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이별을 겪고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도 바꾸어 활용할 수 있다.

이제도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예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이웃은 누구인가요? -언제부터 어떻게 몸이 아프셨나요? -어디가 가장 아프신가요?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웃들이 함께 할머니를 돌봐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별을 앞둔 이웃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등

4. 작별 인사 남기기

- 참고자료를 함께 보며 이별의 순간에 남기고 싶은 작별 인사를 남겨보기
 - 아래의 사연을 함께 봅시다.

【참고자료】

<p>“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p> <p>지난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김 군(15세)이 함께 간했던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인사다. 김 군은 당시 어머니 김 모씨(51)와 함께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를 빼기 위해 내려 갔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p> <p>김 군과 어머니는 차량에 탔지만, 차오른 물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자 김군이 밖에서 차 문을 열고 어머니를 빼냈다.</p> <p>하지만 어머니는 급박한 상황에서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라며 지하 주차장에 있던 다른 주민들과 함께 아들을 내보냈다. 자신은 어깨가 불편하고 수영을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 염려스러워서였다.</p> <p>김 군은 어머니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뒤 사라졌다. 이것이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김 군은 끝내 이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p> <p>자료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43251</p>	
---	---

■ 이별의 순간에 하고 싶은 말 남기기

-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요?

예)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지내라고 할 겁니다./ 천국에 갔다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 남기고 싶은 말을 정리하여 손수건 위에 캘리그래피로 꾸며봅시다.



Tip. 3의 활동과 연계하여 파랑이를 주인공으로 했다면 떠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보게 하고 이제도 할 머니를 주인공으로 했다면 남은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보게 한다. 자신만의 글씨체로 개성 있는 문구를 남기도록 한다.

【선택 활동】

1. 나도 작가-표지 바꾸어 그리기

- 내가 생각하는 이별의 느낌으로 책 표지 바꾸어 그리기

- 여러분들이 겪은 이별의 상황과 그때의 느낌을 떠올려 봅시다.

예) 기르던 애완견을 갑자기 분양 보내게 되었는데 마치 번개를 맞은 느낌 같았어요.

엄마와 아빠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는데 그때 너무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하늘로 편안히 올라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 나만의 경험과 느낌으로 제목과 표지 바꾸어 보기

-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바탕으로 '00같은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표지를 그려봅시다.

